

2026년 10월 셋째 주, 구역 공과

38 특별한 만남

-누가복음 19장 1~10절(신약 128)-

예배순서

• 찬송: 563/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565/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꾼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는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남이다. 성경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을 통해 '특별한 만남'의 본질을 보여준다.

1. 만남의 시작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라는 _____이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쉼 없이 달린다. 그러나 성공의 사다리를 오른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당대 로마 제국의 세무 행정을 총괄하던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 이면의 내면은 철저히 피폐해져 있었다. 민족의 고혈을 짜내 부를 축적한 대가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게다가 '순결하다'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작은 키'라는 신체적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열등감과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라 믿었으나, 정점에 도달한 뒤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이때 그에게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동종 업계의 세리 레위가 예수를 만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평생 목숨 걸고 모은 부를 미련 없이 버리게 만드는 그 예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내면의 갈증과 의문이 삭개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처럼 성공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절박한 목마름이야말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참된 출발점이다.

2. 만남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 _____이 찾아오신다.

삭개오는 예수가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물려든 인파와 작은 키, 체면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삭개오는 사회적 체통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삭개오가 예수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눅 19:5)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으나, 주님의 시선은 오직 나무 위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 사람, 삭개오에게 머물렀다. 주님은 그의 과거나 죄과를 따져 묻지 않으셨다. 외모나 직함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고유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다. 당시 죄인의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종교적·정치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주님은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하셨다. 기독교는 인간이 자격을 갖추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다. 자격 없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의 종교다.

3.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_____은 변화를 일으킨다.

진정한 만남은 반드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는 즉각적이고도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눅 19:8) 삭개오에게 돈은 평생 열 등감을 가려주고 생명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런 그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착취한 것은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실상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고백이다.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그에게 재정적 희생이나 헌금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삭개오의 결단은 억지로 쥐어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다. 진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애지중지하던 ‘짜통 명품’ 같은 재물보다,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참된 보화’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셨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만이 공허한 삶을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나눔과 기도

-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내 인생의 우선순위나 가치관, 생활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 ‘옛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새 생명 축제 때 온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